

#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 개관식 열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추진...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아트센터서 6월 30일까지 개최

익산시가 원도심 치킨로드 조성 및 지역 상권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나폴레옹 유물 특별전이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시는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아트센터에서 지난 30일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展)'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중우 익산시의회 의장, 한병도 국회의원, 고영완 익산경찰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나폴레옹의 전설적인 바이올(이카모자)과 유물은 김홍국 회장의 소장품으로 그간 관교 NS 홈쇼핑 별관 '나폴레옹 갤러리'에서 2017년부터 상설 전시돼 왔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의 특별 요청과 김홍국 회장의 고향을 사랑하는 뜻이 한마음이 돼 개최가 성사됐다.

특별전 장소인 문화예술의 거리는 지난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마치고 청년시청, 청년플, 청년공유주방, 근대역사관 등이 동지를 들고 운영되고 있다.

익산시는 원도심인 중앙동 지역 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치킨로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치킨로드 조성에 봄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전시회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고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063-859-545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는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아트센터에서 지난 30일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展)' 개관식을 가졌다.

한 사항은 위생과(063-859-5454)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국 회장은 "나폴레옹은 가능성이 1%만 있어도 100%를 만들어낸 인물로 지역의 젊은 이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긍정의 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며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과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원도심인 익산역과 중앙동 지역은 익산의 심장부로 치킨로드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관협력으로 특별전을 마련했다"며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과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학당 1기 성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통한지 참여교육 '한지학당 1기'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당 전주천년한지관에서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8주간의 과정으로 진행, 직접 초지 뜬 전통한지에 민화를 그리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생 개인의 개성이 담긴 민화 작품은 2일 수료식과 함께 전주천년한지관 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 당초 모집인원인 15명을 훨씬 웃도는 지원자가 몰렸다.

경의를 진행한 장우석 박사는 "직접 뜬 한지에 민화를 그려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교육생들에게 전통한지와 한민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영 원장은 "한지학당은 전통한지를 직접 제조해보고 이를 활용한 전통문화를 배우는 전당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한지학당 1기 교육생들의 8주간의 노력이 담긴 한지 민화 결과물이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길 바라며, 하반기 진행될 한지학당 2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자료 기증식 가져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지난 4월 29일 국가무형유산 관련 자료 기증자들을 초청해 '무형유산 자료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기증된 자료는 고(故) 김월하 가곡 보유자의 유품을 비롯해 김경배 가곡 보유자와 박정자 단청장 명예보유자의 소장자료 등 총 87건(121점)이다.

먼저 고(故) 김월하는 가곡 보유자로 여창가곡에 능했다. 한국전쟁 중에 피난지 부산에서 당시 가곡의 일인자였던 이병성을 만나 정가를 배웠고, 이후 평생을 정가의 전승과 진흥에 매진했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로는 김월하 보유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악금과 정가 음반 등이 있다.

이어 김경배 가곡 보유자는 1955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1기생으로 입학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국악원 연주행사에서 김월하를 만나 인연을 맺고 시조와 여창가곡을 익혔으며, 이주환·홍원기 가곡 보유자에게 남창가곡을 배우며 기량을 다졌다.

김경배 보유자는 김월하의 유품과 함께 자신이 직접 쓴 가곡보와 가사보, 시조창보 등을 기증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자 단청장 명예보유자는 고(故) 이치호 문하에서 단청과 불화를 익혔다. 1987년에 전승교육사로 인정됐으며, 매년 개인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전승활동을 이어오다가 2020년 명예보유자가 됐다. 박정자 명예보유자는 연꽃·길상화 등 다양한 단청문양을 그린 벽걸이와 저리교·두루마기, 불화교본 등을 기증했다.

기증 자료들은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되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와 자료집 발간, 국립박물관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관련 자료를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보존·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계승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5일 어린이축제 개최

태권도 시범공연·체협 등 다채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5일 박물관 일원에서 2024년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물관정원 그리기마당, 체협놀이마당, 공연마당, 영화상영으로 나눠 펼쳐진다. 체협놀이마당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달고나 체험이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 도예체험 선착순 100명 분량목걸이 만들기 체험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북아트 홀로그램 만들기, 박물관정원 그리기마당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공연마당에서는 오전 10시 어린이를 위한 국악공연, 오전 11시에는 5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연계 공연인 전주대학교 싸울아버리 공연단의 태권도 시범공연 '해설이 있는 K-태권도의 탄생과 진화'가 진행된다.

오후 2시에는 매직 버블쇼가 진행되며, 오후 3시에는 유쾌 발랄 거리음악극 '달달'의 가족 뮤지컬이 준비되어 있어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날 축제가 푸짐한 체험과 공연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전 11시에는 영화 '뽀로로', 오후 2시에는 영화 '샤크스볼'을 상영한다.

이번 어린이 축제의 모든 행사 참가비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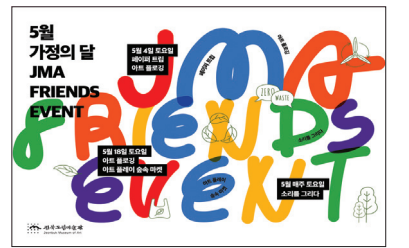
## "가정의 달 5월 미술관 나들이 떠나자"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4일 어린이날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어린이 날을 맞아 가족과 어린이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JMA FRIENDS EVENT를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미술관 1층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전시 <PAPER+JAM>, 여행을 컨셉으로 한 연계프로그램인 <PAPER TRIP>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된다. 선착순 500명의 어린이에게 종이를 만든 여행가방을 선물하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여권과 여행 티켓, 사진 촬영권, 플립북 꾸미기 키트 등을 제공해 전시를 둘러본 뒤 여행을 마치고 일기를 쓰듯 플립북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한다. 현장 접수하며, 재료가 소진되면 체험은 마무리된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모악산 및 미술관 주변을 정화하는 플로깅(쓰레기 줍기)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자연재료를 재활용해 작가와 함께 창작,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아트 플로깅>이 진행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100명을 모집하며, 참여자 모두에게 플로깅 키트를 제공한다.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중 30명은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 <미술관 옆 유목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 미참여자는 제로웨이스트 키트를 받을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후 미술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개인 SNS에 업로드 인증을 하면, 커피박 연필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 남원시, 만복사지 사역 복원

남원시가 역사 인식 부족으로 잘못 정비된 문화유산 재정비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적의 경관성을 저해하고 있는 남원 만복사지 관동도로 폐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복사는 고려 문종(1046~1083)때 건립된 사찰로, 금오신화 소설 중 하나인 만복사지포기의 무대이자 석조여래입상을 비롯한 보물 4점과 석조인왕상(도 지정) 등 다양한 유산이 자리하는 사찰이다.

만복사지는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시 소실되어 지금은 이르고 있는 폐사지로,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로 인해 문화유산의 경관성 저해와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관동도로 폐도사업을 추진, 만복사지 종합정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관동도로 폐도사업은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폐도 이후 하부에 대한 발굴조사와 석인상 이전 및 보존처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 선화당

### 관풍각

### 내아